

# 친구·가족들과의 여행 기쁨이 악몽으로 변했다

## 안타까운 탑승객 사연들

화순군 공무원 등 8명 동반 여행  
아들과 첫 여행 나선 일가족 3명  
학생·교직원 12명도 함께 탑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라 점에서 탑승객 가족들은 사연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

일가족이 단란하게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한 사연, 첫 해외여행길이 마지막 여행이 된 기구한 운명 등 탑승객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광주에서 자영업자하고 있는 A씨는 이번 사고로 여동생(23)을 떠나보냈다. 아버지가 태국 국제 사업마와 결혼해 A씨는 태국 출신의 여동생이 생겼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게 된 것이다.

A씨는 “태국에서 무안으로 오는 비행기가 오늘 단 한 편밖에 없어 이 항공기로 동생이 오기로 해 아침부터 가게 일도 접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는데 허망하다”면서 “동생이 먼저 광주로 온 뒤, 세암 마도 광주로 건너오기로 했는데 아침에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말을 잊지 못했다.

이모(54)씨는 화순군청에서 근무하는 둘째 누나(58)를 이번 사고로 잃었다. 이씨는 “5남매라 ‘독수리 5형제’라 불렀는데 한 명이 가벼웠다”고 망연 자살해했다.

그는 “화순군청 직원들끼리 간 여행이라고 들었는데. 방콕으로 여행간다고 신나했는데, 뉴스 속보로 사고 소식을 듣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양친이 돌아가시고 남매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았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화순군에서는 현직 공무원 3명, 퇴직 공무원 5명이 동반 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들은 이서면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모임으로 전해졌다.

화순 농·축협 조합원과 가족 등 8명도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호남인에게 희망을 안겨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을 함께 했던 KIA 타이거즈 관계자 B(43)씨 일가족도 이번 여객기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연소 탑승객인 B씨의 아들 2명(3·43개월)과 아내(37)의 사고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주변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B씨는 최근 첫 가족 여행의 기쁨과 설레임을 SNS에 사진과 글로 남기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 지역을 담당하던 언론인도 사고 비행기를 탑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지역의 현장 취재를 담당 하던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지역 언론계에서도 슬픔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고로 아내를 잃은 박수용(광주시 남구, 43)씨는 무안공항에서 좌절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3개월 연애 후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결심한 박씨는 슬하에 여섯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올해로 결혼 7년차 부부다.

박씨는 “아내가 친구들과 다섯명에서 연말에 방콕 여행을 간다고 좋아했었다”며 “아직 아이는 엄마 소식을 모르고 공항에 따라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라며 말을 흐렸다.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청사에서 유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는 “공항 측으로부터 연락 받은 건 공식적으로 22명에 불과하다. 신원 파악 등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연신 눈물을 흘렸다.

이외에도 광주·전남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사고

비행기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4명의 학생이 전남에서는 5명의 교직원과 3명의 학생이 이 비행기를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에 70대 이상 부부 등 8명의 순천 시민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불안한 정국 속 여객기 참사 더해져 ‘최악 연말’ 된 광주·전남

가족 단위 관광객이 대부분

지인들 안부 묻고 뉴스 집중

일요일 오전 광주·전남을 뒀던 비극적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역민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유례가 없는 피해 규모에, 사망자 대부분이 광주·전남 거주자들로 직계 가족, 방계 가족, 친척, 지인 등이 일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자, 메신저 등을 확인하거나 주변인들의 안부를 묻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침울한 표정을 짓고 뉴스 속보에 눈을 고정시켰다.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을 비롯해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제주 정기간이 운항에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주로 지역 여행자들이 중저가 관광상품을 구성해 판매에 들어갔다.

연말 추운 겨울을 벗어나 따듯한 날씨의 태국 방

콕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가족, 동료·친구 등의 단체 관광객들이 이 상품을 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여행사에 따르면 이 관광상품은 12월 25일 저녁 8시 50분 무안국제공항을 출발해 3박5일간 파타야 수산시장, 황금불상 바위산, 요트투어, 파타야 야시장, 에메랄드 사원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29일 새벽 1시 30분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이날 오전 8시 30분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1인당 100만 원 내외의 경비에 항공료, 5성급 호텔, 식사, 차량, 여행자보험(2억원), 한국인 가이드, 기사 및 가이드 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 상품 구성도 좋은데다 무엇보다 가까운 무안국제공항 출발·도착이라는 조건에 지역민들이 선호했다고 전해진다.

김모(여·52)씨는 “지난 27일 친구들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을 다녀왔다”며 “여행 비용도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이동시간이 짧다는 매력 때문에 다녀왔는데, 이번 참사로 충격을 받아 다시는 무안국제공항에 못 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면 친척, 지인 등이 탑승객 명단에 포함된 경우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주시하며 하루 종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객기 선미에 탄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나머지 179명 모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방당국의 발표에는 한숨을 쉬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정모(55)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이번에 부부 동반으로 방콕에 간다고 하길래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한순간에 친한 사람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과 탄핵으로 어수선한 정국 속 최악의 대참사가 더해지면서 2024년 연말은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기억하기조차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당 등은 시도민 애도기간을 별도로 지정, 송년회, 신년회 등을 취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희생자 추모에 나설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생존자 2명 남녀 승무원...선미 부분서 구조

서울 이대·아산병원 이송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생존자는 2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구조된 생존자는 2명으로 모두 승무원이다.

구조된 승무원 2명은 A(22)씨와 B(여·25)씨로, 사고 후 구조돼 각각 목포 한국병원과 목포 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여객기 선미에서 구조됐다.

A씨는 어깨가 골절되고 머리 부상을 입었다. 이후 가족들의 요구 등으로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가족들이 있는 서울 이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은 “A씨가 이송 당시에도 의식이 있었다”면서 “이송을 하면서 대화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도착을 앞두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비행기가 착륙한 것 같았는데 이후는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구조된 여성 승무원도 “비행기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폭발했다”는 말을 했다고 소방본부 측은 전했다.

B씨도 오른쪽 발목과 갈비뼈가 골절당하는 부상을 입고 오후 3시 40분께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교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교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